

은행 '몸사리기'... 기업 대출 '반토막'

지난달 3조5천억...전달비 증가액 절반 수준

정부 유동성 지원 불구 '위험자산' 대출 꺼려

은행들이 정부의 각종 유동성 지원에도 기업대출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려고 위험자산인 대출을 꺼려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3조5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전달 증가액 7조3천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이러한 증가액은 작년 12월 4조 2천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10월 4조8천억 원에서 11월 9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한은 금융시장국 김현기 차장은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C&중공업과 C&우방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각각 신청하는 등 대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전달과 같은 2조6천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은행권의 중기업 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7조4천억원에서 5월 5조8천억원으로 줄어든 뒤 6월과 7월에도 5조~6조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1조8천억원으로 급감한 뒤 9월에도 1조 9천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10월 1조 원에서 11월 1조8천억원으로 확대됐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1조4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은행들이 예금극리를 내리면서 수신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은행수신 증

가규모는 10월 21조6천억원에서 11월 9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정기예금 증가액은 19조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급감해 리먼 브라더스 파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9월(2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수시입출식 예금은 전달 2조8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단기 여유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전달 12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주식형펀드도 주가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판매규모가 줄어들어 전달 3조4천억원 감소에서 1천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허위영수증 40% 가산세

■ 연말정산 준비... 유의할 점

연말정산 때마다 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납부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공제항목을 놓고 부부나 형제가 모두 서류에 써넣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청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연말정산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산후조리원·간병비용 공제 안돼

안경 구입 확인서 등 따로 챙겨야

◇인적 공제,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여부 살펴야=인적 공제에서는 우선 해당가족의 연소득을 살펴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사람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부당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보양하는 부모에 대해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경우도 역시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보험료 공제에서는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공제받아도 부당공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사용실적을 포함시켜 공제받는 것은 불가하다.

◇간병비·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안돼=의료관련 비용이라도 산후조리원이나 외국산 카드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를 신청하면 부당공제가 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사

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마찬가지다.

교육비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비과세되는 학자금,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를 공제 받은 경우가 부당공제로 분류된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국제청이 신고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세법이 허용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거나 허위로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는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항목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표 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다.

하지만 의료비에서도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명세서의 제공되지 않던 안경 구입 확인서와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은 없어 이들 항목은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

교육비 역시 초·중·고·대학(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직업 능력개발 훈련비 영수증은 제공되지 않던 보육료 납부 영수증이나 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독학 학위 교육비 납입증명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관련 공제항목은 지난해까지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제공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증명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소득공제의 공제부금 납입증명서가 새로 제공된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2년 내 팔면

양도세 40~50% 적용

재정부 '증과 완화' 조치

다주택자가 2009년부터 2010년에 추가로 구입한 집을 2년 내에 팔 경우 40~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완화에 대한 보완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면 50%, 1~2년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간 일반세율(6~35%)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도 45%로 낮췄지만, 이런 규제완화가 1주택자가 2년 내에 집을 팔 경우 4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단기 양도 증과와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즉 앞으로 2년간은 1가구 1주택자보다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단기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더 낮게 적용받는 상황이 생기자 재정부가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수입 원자재 값

5개월째 하락

11월 '코이마지수' 61P ↓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5개월 연속 내리고 있고 세계은행도 원자재 가격의 2년내 반등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어 향후 물가 인하 등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10일 한국수입업협회(KOIMA)에 따르면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이마지수'가 11월 224.57포인트로 10월보다 61.2포인트 하락했다.

유화원료(-39.82%)를 비롯한 철강재(-25.42%), 광산품(-20.49%), 비철금속(-17.43%) 등 전 종목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급락과 수요 약세가 맞물린 나프타(-44.22%)가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프로판(-37.97%), 선철(-37.74%), 고철(-36.79%) 등도 떨어지는 등 코이마지수 조사대상 30개 품목 중 25개 하락하고 5개 보합세를 보였다.

수입업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했다"면서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가격의 약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원자재 고공행진 시대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역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제2회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이 1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개막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상품전에는 14개 업체가 참가해 허브쥬얼팩·미용비누·한과 등 120여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환율 50원 ↓ ... 한달여만에 1,300원대

코스피 지수는 40P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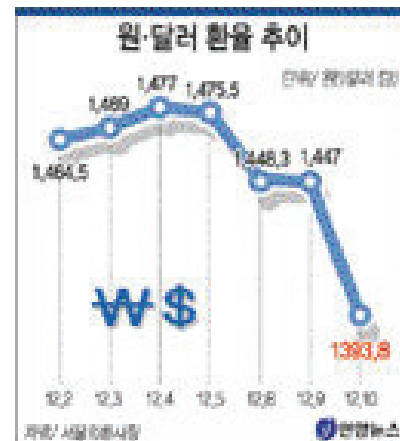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이 50원 이상 폭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1,400원 아래로 떨어졌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달보다 달러당 53.20원 폭락한 1,393.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가 급등과 지

지선 붐과에 따른 손절매도 등으로 환율이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지수는 미국 뉴욕증시의 하락에도 전달보다 40.03포인트(3.62%) 오른 1,145.8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달보다 5.90포인트(1.85%) 오른 324.15를 기록,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선데다 '네마녀의 날(퀴드러를 위칭데이)'을 하루 앞두고 5천139억원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집 경매뎀 전세금 6천만원까지 변제”

보호대상도 전지역 확대

앞으로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가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

제구역에 한해 보호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이 6천만원까지로 책정돼 있으며 광역시는 5천만원까지, 나머지 지역은 4천만원까지로 돼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수용키로 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긍정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경제·금융위기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서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경기 침체로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세금은 아직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보호 대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영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림직업전문학교	2009년 국비무교 교육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529-3000
윤선생영어교실	광주/전남/영어상담 및 관리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12	062-526-0566
(주)해일테크	경기사무지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12/12	062-526-2284
SK텔레콤 서광정보	SK텔레콤 고객상담/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4	062-366-2011
에드윈 디자인파트너스	MAC편집디자인어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223-0655
동원건설(주)	사무보조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4	011-601-0320
KFG(주)	2009년 FA(Financial Advisor)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382-4114
(주)대영정보	서버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682-8113
(주)필코스메틱	쇼핑몰 웹디자인 정규직	고졸/경력1년	1600~1800	12/15	062-267-8071
(주)HRN	(동시모집)SK텔레콤 광주역/서부지사 114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12/15	062-529-2671
대일하이텍(주)	(목포/화성)배출, 매장, 영업관리 담당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17	061-244-2757
한국아이넷	진취적인 기획사원 (제안서 작성 및 영업관리)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12/17	062-611-5500
빅딜나무현의원(광주점)	간호사, 간호조무사, 침구실 업무/상담 접수 코디네이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7	010-2648-464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금융기관 을 임금 동결

광주은행 등 34곳 ... 영업시간도 30분 앞당겨

광주은행을 포함한 34개 금융기관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내년 2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종전보다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10일 은행연합회와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날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이 대표자회의를 열고 임금동결과 영업시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연합회는 3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집단협 교섭관원을 위임받아 금융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노사간 큰 인식차를 극복하고 임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또 현행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4시30분인 영업시간을 내년 2월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영업시간 조정은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와 경쟁을 하려면 개점시간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뤄졌다.

/장필수기자 bungy@

LPG가격 내년 초 대폭 내린다

업체 1당 234원 가량 낮출듯

내년 1월 액화석유가스(LPG) 소비자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LPG수입업체가 각 충전소에 공급하는 LPG공급가격을 크게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하 폭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0일 LPG수입업체에 따르면 E1, SK가스 등 국내 양대 LPG수입업체는 크게 떨어진 수입가격을 반영해 내년 1월에 적용되는 LPG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실제로 내년 1월 국내 LPG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12월분 수입가격은 프로판가스는 1당 150달러, 부탄가스는 155달러가 각각 떨어지는 등 대폭 하락 조정됐다. 이에 따라 LPG수입업체는 환율이 안정된다면, 수입가격 하락으로 LPG공급가격을 현재보다 kg당 400원(1당 234원) 안팎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LPG수입업체의 계산대로 LPG공급가격이 인하되면, 현재 1당 1천100원대에서 판매되는 수송용 부탄가스의 소비자 가격은 1당 800원대로 떨어져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외국산 '저가 폰' 수입

단말기 가격하락 예상

애플의 '아이폰', 노키아의 저가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단말기 가격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흥)는 10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산 단말기의 국내 진출을 제한했던 '위피(WIFI)' 탑재 의무화를 해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세계 통신시장이 빠른 속도로 범용 모바일 OS(운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

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위피 또는 범용 모바일 OS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위피의 탑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외국 휴대전화 업체와 시장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위피(WIF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규격으로 모바일 게임과 같은 무선 인터넷 콘텐츠가 사업자에 관계없이 휴대전화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05년 4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인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해 왔다.